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12. 28.(화) 총 1매(본문 1)	
담당 부서	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	담당자	·과장 윤한섭, 주무관 원관희, 서준석 ·☎ (033) 769-5830, 5834, 5855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태백 삼수령터널 입구 도로균열·침하가 불량 성토재 사용이 원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프레스리안, '21.12.28.) >

- ◆ 국도35호선 태백 삼수령터널 입구 도로균열·침하는 부실시공
- 불량성토재 사용으로 인해 '20년, '21년에 걸쳐 도로 균열, 침하 발생
 - 대한토목학회 용역결과 불량성토재 사용, 보강토옹벽의 변형을 확인
 - 태백시 관계자 “도로 하단 성토재로 풍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토사를 사용하여 도로균열과 침하가 나타나..”

□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박일하)에서 공사 준공 후 '17년 12월 태백시로 이관한 국도35호선 태백시 화전동~상사미동 6.6km 구간 중 삼수령터널 인근에 발생한 도로 균열·침하의 원인으로 지목한 성토재는 '13년 9월 시공 당시 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판정*을 받은 후 시행하였습니다. 이에 불량 성토재를 삼수령터널 입구 도로 균열·침하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태백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.

* 성토용 흙 목적으로 공사구간 내 토취장에서 시료채취 후 한국SGS(주)에 의뢰하여 적합판정('13.10.2.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원관희 주무관(☎ 033-769-58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